

# 溫病과 傷寒의 發病經路에 대한 연구

-章楠의 醫學思想을 중심으로-

I. 序論 .....	79
II. 本論 .....	79
1. 傷寒學派와 溫病學派의 論爭 .....	79
1) 論爭의 始作 .....	80
2) 溫病의 分化, 發展 .....	81
2. 發病經路의 차이 .....	82
1) 溫病의 分類 .....	82
2) 發病經路의 差異 .....	83
III. 結論 .....	87
IV. 注 및 參考文獻 .....	88

KYOBO  
교보문고

## 溫病과 傷寒의 發病經路에 대한 연구

-章楠의 醫學思想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上龍

### I. 序論

溫病과 傷寒은 外感病의 두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상한은 張仲景이 『傷寒論』에서 六經으로 辨證체계를 정리한 후 큰 이견이 없이 후세 醫家들에 의하여 보충,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溫病은 葉天士와 薛生白, 吳鞠通, 王孟英, 章虛谷 등 중국 靑代 의가들이 각 家의 의견을 폭넓게 정리한 후 비로소 일정한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溫病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傷寒論』의 영향과 『黃帝內經』과 『難經』 등의 언급이 학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대 온병과 상한을 비교한 연구는 주로 病因의 性質, 發病時期, 病證, 疾病의 傳變方式, 손상 받는 正氣의 차이, 치료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傳變方式에 대한 연구는 『傷寒論』의 六經辨證에 비견되는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이 생겨날 수 있는 理論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위기영혈변증과 삼초변증이 육경변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온병의 發病經路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것이, 이를 창시한 醫家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두가지 辨證도 크게는 육경변증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병과 상한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논점과 육경변증의 六經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章虛谷의 議論을 근간으로 해서 중국 明代의 吳又可를 비롯한 청대의 설생백, 섭천사 등이 『傷寒論』의 육경변증의 대체수단으로 위기영혈변증과 삼초변증을 제발한 이유에 대하여, 상한과 온병의 發病經路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찾아가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傷寒學派와 溫病學派의 論爭

온병과 상한을 바라보는 역대 의가들의 주안점은 주로 病因과 症狀, 治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세 학자들은 온병을 상한의 범주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의가들을 상한학파라 하고, 온병을 상한과 독립시켜 논하고자 한 학파를 온병학파 불렀는데, 이 두학파의 논쟁은 청대에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sup>

### 1) 論爭의 始作

온병을 상한의 범주에서 해석하고자 한 상한학과 주장의 근거는 『黃帝內經』과 『難經』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온병도 상한의 理, 法, 方, 藥의 범주에서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한학파들은 『素問·熱論』에 나오는,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sup>2)</sup>,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 爲病溫, 後夏至日者, 爲病暑, …”<sup>3)</sup>라고 하는 것과, 『難經·五十八難』에 나오는, “傷寒有五, 有中風, 有傷寒, 有濕溫, 有熱病, 有溫病, 其所苦各不同”<sup>4)</sup>이라 하는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傷寒論』에 나오는 온병과 風溫에 대한 언급<sup>5)</sup>과 「傷寒例」<sup>6)</sup> 등에 나오는 時行, 冬溫, 溫病 등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온병을 상한과 다르다고 보는 의가들은 상한의 처방으로 온병을 치료하면, 크게 사람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金元四大家의 선구자인 劉河間은 仲景이 外感初期에 辛熱한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에 반대하고 辛涼한 약을 써서 鬱熱을 풀어 치료해야 한다<sup>9)</sup>고 주장하여, 온병학과 의 鼻祖로 추존받고 있다. 그는 『傷寒直格』의 서문에서, “經曰,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 古今亦通謂之傷寒熱病, …六經傳受自淺至深, 皆是熱症, 非有陰寒之病, …古聖以陰陽爲表裏, 惟仲景深得其旨, 厥後朱肱奉議作活人書, 尙失仲景本意, 此差之毫釐, 失之千里, …”<sup>10)</sup> 라고 하였다. 하간은 상한학파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黃帝內經』의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를 반대로 해석하여, 비록 外感病이 寒邪에 감축되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증상은 熱狀을 띠므로 陰寒之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논변하고 있는 것이다. 明代에 王履는 『醫經朔匯集』에서 상한과 온병, 熱病의 차

이에 대하여 논하기를, “有病因, 有病名, 有病形, 辨其因, 正其名, 察其形, 三者俱當, 始可以言治矣. 一或未明而曰, 不悞於人, 吾未之信也. 且如傷寒, 此以病因而爲病名者也. 溫病熱病, 此以天時與病形而爲病名者也. 由三者, 皆起於感寒, 或者通以傷寒稱之, 夫通稱傷寒者, 原其因之同耳, 至於用藥, 則不可一例而施也. 何也. 夫傷寒, 蓋感於霜降後春分前, 然不即發鬱熱而發於春夏者也. 傷寒, 即發於天令寒冷之時, 而寒邪在表, 閉其腠理, 故非辛甘溫之劑, 不足以散之, 此仲景桂枝麻黃等湯之所以必用也. 溫病熱病, 後發於天令暄熱之時, 佛熱自內而達於外, 鬱其腠理, 無寒在表, 故非辛涼, 或苦寒, 或酸苦之劑, 不足以解之, 此仲景桂枝麻黃等湯, 獨治外者之所以不可用, 而後人所處水解散大黃湯千金湯防風通聖散之類, 兼治內外者之所以可用也. 夫即病之傷寒, 有惡風惡寒之證者, 風寒在表, 而表氣受傷故也. 後發溫病熱病, 有惡風惡寒之證者, 重有風寒新中, 而表氣亦受傷故也. …”<sup>11)</sup> 라고 하여, 상한과 온병을 病因, 病名, 病形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즉 상한이나 온병은 병인으로 본다면 모두 風寒이 병을 일으키지만, 병이 發作하는 時期와 症狀이 틀리기 때문에 한가지로 이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증상이 틀리게 나타나는 이유는, 表氣 즉 陽氣가 울체, 손상되어 발생한 상한은 표기를 辛溫한 약으로 풀어주어 치료할 수 있지만, 風寒邪가 안에 잠복되어 있다가 기후가 따뜻한 시기에 발작한 온병과 열병은 表裏가 모두 뜨겁기 때문에 표리를 싸늘하게 해주는 辛涼, 苦寒한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온병과 상한을 발작시기에 따라 다른 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법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명백히 밝힌 것이다. 또한 온병이나 열병의 초기 증상이 상한과 유사한 이유로, 온병이 발작할 때 새로운 邪氣의 감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여 新感溫病에 대한 약간의 견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왕리도 하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病因을 風寒으로 한정했다는 면에서는, 寒邪를 외감병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한학파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 發病經路에 있어서도 상한이나 온병이 모두 太陽經을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 『傷寒論』의 육경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치료법만을 변경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溫病의 分化, 發展

朴贊國은 『黃帝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온병의 病因論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즉, 「生氣通天論」, 「金匱要略」 및 「陰陽應象大論」에서는 伏氣論을, 「熱論」에서는 新感論을, 「六元正紀大論」 등에서는 氣候不適論 등으로 온병의 발병원인을 설명했다<sup>12)</sup>는 것이다. 이는 상한학파들이 주장한 風寒 위주의 病因觀이나 河間이나 王履가 주장한 伏氣溫病 등에 더하여, 『黃帝內經』에서 新感溫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의 온병전문서로 평가받고 있는 『溫疫論』(1642)을 지은 吳又可<sup>13)</sup>는 온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溫疫<sup>14)</sup>의 병인에 대하여, “此溫疫之爲病, 非風非寒非暑非濕, 乃天地間別有一種異氣所感, …”<sup>15)</sup> 이라고 하여, 병인에 대하여 역대 의가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병기전에 대하여, “此氣之來, 無論老少強弱, 觸之者卽病, 邪從口鼻而入, 則其所客, 內不在臟腑, 外不在經絡, 舍于夾脊之內, 去表不遠, 附近于胃, 乃表裏之分界, 是爲半表半裏, 卽針經所謂橫連膜原, 是也. …至于伏邪動作, 方有變證, 其迹或從外解, 或從內陷, 從外解者順, 從內陷者逆. 更有表裏先後不

同, 有先表而後裏者, 有先裏而後表者, 有但表而不裏者, 有但裏而不表者, 有表裏偏勝者, 有表裏分傳者, 有表而再表者, 有裏而再裏者. …”<sup>16)</sup> 라고 하여, 『傷寒論』의 六經傳變과는 다른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오우가는 왕리가 상한과 온병의 차이로 논했던 病形이나 발병시기에 따른 분류를 넘어 온병의 발병에 대한 새로운 病因論과 發病經路, 邪氣의 침입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크게 이견이 없었던 온병과 상한의 발병원인이 같다는 견해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특히, 溫疫을 일으키는 邪氣가 처음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인체의 가장 밖인 太陽經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口鼻를 통해 半表半裏之間인 膜原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온병의 발병경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온병에 대한 이해는 오우가에 이르러 『傷寒論』의 범주를 벗어난 新感溫病의 등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우가의 병인론과 발병경로는 청대 섭천사(1667~1746)와 설생백(1681~1770), 오국통(1758~836) 등에 의하여 완전히 긍정받지는 못한다. 섭천사는 그의 『外感溫熱論』에서 온병을 일으키는 邪氣를 溫邪라고 하고, 온병의 발병경로, 그리고 상한과 차이에 대하여, “溫邪上受, 首先犯肺, 逆傳心包, 肺主氣屬衛, 心主血屬營, 辨衛氣營血, 雖與傷寒同, 若論則與傷寒, 大異也.”<sup>17)</sup> 라고 하여, 온병을 일으키는 것은 溫邪이며, 발병의 시작은 肺이며, 그 발병경로는 衛氣營血의 순서를 따른다고 함으로써, 六經으로 나누는 『傷寒論』의 견해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설생백은 섭천사가 온병과 상한의 차이점을 논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濕熱病을 온병과 구분하여 논하기를, “濕熱之病, 不獨與傷寒不同, 此與溫病大異, 溫病乃少陰太陽同病, 濕熱乃陽明太

陰同病也<sup>18)</sup> 라고 하여, 상한과 온병, 습열병은 각기 병이 시작하는 발병부위가 다름을 논하고 있다.

오국통(1758~1836)은 『溫病條辨』<sup>19)</sup>에서, 『難經』의 三焦說을 기초로 하고 諸家의 설을 참고하여 三焦辨證을 제시한다. 오국통이 上焦, 中焦, 下焦로 病證을 나누어 보는 삼초변증을 창안한 이유에 대하여, 崔·朴 등은 섭천사의 『外感溫熱論』이 습열병에 대한 논의가 한條에 그칠 정도로 너무 적고, 衛氣營血辨證으로는 습열병을 포함한 온병 전반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0)</sup>

이렇게 新感溫病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면서 伏氣溫病에 대한 정리도 함께 이루어진다. 王孟英(1808~1866)은 『黃帝內經』의 “冬傷於寒, 春必病溫”, “夫精者, 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不病溫”,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 爲病溫, 後夏至日者, 爲病暑, 暑當與汗出勿止<sup>21)</sup>” 등을 인용하여 복기온병은 冬寒에 寒邪에 손상을 받아 夏至를 前後로 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체 正氣의 근본인 精의 잠장여부가 발병의 주된 素因이 됨을 밝히고 있다. 또, 章虛谷은 上文에 인용된 설생백의 “溫病乃少陰太陽同病”에 대하여, “冬傷寒邪, 伏於少陰, 化熱, 至春發出於太陽而爲溫病, 卽仲景所論者也. 若葉氏所論之外感溫病, 則又不同者也<sup>22)</sup>”

라고 해석하여, 신감온병과 복기온병의 발병기전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 있다.

『黃帝內經』과 『傷寒論』의 문구에 대한 견해차이와 질병의 치료과정 중에 나온 경험의 차이로부터 출발한 온병과 상한의 整體性에 대한 논란은, 청대에 이르러 결출한 의가들이 나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장허곡이 이런 의가들의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상한과 복기온병, 신감온병에 대하여 한 매듭을 짓는다.<sup>23)</sup>

## 2. 發病經路의 차이

본 편에서는 청대의 의가로서 『傷寒論』과 온병 제서에 대하여 논하고 注를 단 장허곡<sup>24)</sup>의 『醫門棒喝』을 축으로 해서 다른 의가들의 의론을 덧붙여 상한과 온병의 발병기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溫病의 分類

장허곡은 온병을 임상적인 시각에 맞추어 春溫, 風溫, 暑溫, 濕溫, 瘟疫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sup>25)</sup> 이들 온병에 대한 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온에 대하여 이르기를, “春溫者, 冬傷於寒, 春必溫病, 又曰冬不藏精, 春必病溫, 此伏氣之邪, 發爲春溫病也, 王叔和撰傷寒例曰, 冬傷寒邪, 藏於肌膚, 至春發爲溫病, 至夏變爲熱病, 熱病者, 重於溫也.”<sup>26)</sup> 라고 하여, 춘온은 겨울에 寒邪에 손상을 받아서 한사가 肌膚에 잠복해 있다가 陽氣가 올라 따뜻해지는 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伏氣溫病에 속함을 말하고 있다. 또, 『傷寒例』를 인용<sup>27)</sup>함으로써, 상한학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한의 일종으로서 온병은 곧 춘온을 가리킴을 나타내고 있다. 풍온에 대하여 이르기를, “風溫者, 冬至一陽來復, 則陽進陰退, 立春以後, 陽氣漸旺, 由溫而熱, …故風溫之病, 較三時爲多, 若方書所稱溫熱冬溫等名, 皆可以風溫二字該之, 蓋冬令溫和, 未必爲病, 必中邪風而成溫病, 溫重卽成熱病, 是以不受另分名目也.”<sup>28)</sup> 라고 하여, 풍온은立春以後 날씨가 따뜻할 때 걸리는 병으로 사계절에 다 있지만 특히 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신감온병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날씨가 따뜻하고 인체의 陽氣가 바야흐로 왕성해질 때 風溫之邪에 감촉하여 생기는 질병이 풍온이며, 온병이나 열병이 같은 류임을 밝

하고 있다. 서온에 대하여 이르기를, “暑溫者, 素問熱論篇曰,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爲病溫, 後夏至日爲病暑, 暑當與汗皆出勿止, 此雖同論伏氣之病, 但自夏至一陰來姤, 陽氣漸退, 長夏濕土司令, 濕土與相火合氣, 乃名暑. 暑者, 陽盛於外, 而陰長於內, …”<sup>29)</sup> 라고 하여, 서온은 天地의 극성해진 陽氣가 바야흐로 쇠퇴하고 안에서 陰氣가 점차 자라날 때 相火와 濕氣가 상합하여 생긴 暑邪가 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습온에 대하여 이르기를, 濕溫者, 夏感暑濕, 及四時溫病, 而體質陽虛多濕者, 則熱爲濕溫, 不能宣達, 濕困熱蒸, 蘊釀膠粘, 故最淹纏難愈, 或胸腹滿悶, 或體重痠疼, 或爲瘧疾, 或爲瀉痢, 或爲黃疸, 或爲痺腫, 變證多端, 皆濕熱爲病, 是名濕溫也.”<sup>30)</sup> 라고 하여, 습온은 濕熱病이라고도 하며, 夏至를 지나 一陰이 始生할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날씨가 따뜻하여 인체와 기후가 모두 陽熱이 성할 때 濕邪에 감촉되어 발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 습온 역시 신감온병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임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역에 대하여 논하기를, “…至於瘟疫, 又屬大異, 蓋由五運六氣, 主客流行, …或兼穢汚之氣, 蘊釀而成, 故其病邪, 較風溫等爲重, …瘟疫病發, 往往一方相類, 如經所云遠近咸若也.”<sup>31)</sup> 라고 하여, 運氣의 이상이나 穢濁之氣에 감촉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증세가 風溫에 비하여 위중하며, 같은 지역에서는 서로 유사한 질병과정을 거친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온병이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상한과는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夫六氣傷人爲病各異, 必辨其爲何氣之邪, 治之方無錯誤, 如寒爲陰邪, 傷人之陽, 熱爲陽邪, 傷人之陰, 二者冰炭, …”<sup>32)</sup> 라고 하여, 상한을 일으키는 한사는 陰邪로 인체의 陽氣를 해치고 온병을 일으키는 陽邪는 인체의 陰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伏氣溫病인 춘온

이나 新感溫病인 풍온, 서온, 습온, 온역 등은 병을 일으키는 邪氣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陰血을 해쳐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범주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한과 온병은 질병을 일으키는 邪氣가 陰邪와 陽邪로 陰陽의 속성을 달리하고, 손상시키는 正氣의 陰陽屬性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온병이라 할지라도 新感溫病과 伏氣溫病은 그 맥락이 서로 다르다. 북기온병은, 그 發病性狀은 온병의 범주에 들지만 병을 일으키는 邪氣는 寒邪로 상한을 일으키는 邪氣와 같다. 단지 상한과 틀린 것은 邪氣에 감촉된 후 기후가 싸늘한 계절에 발병했는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더워진 이후에 발병했는가라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邪氣의 성질만을 가지고 온병과 상한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發病經路의 差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한과 온병은 감촉한 사기의 陰陽屬性, 發病時期, 질병의 증세 등에 의하여 傷寒, 伏氣溫病, 新感溫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일으키는 사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디로부터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체의 表裏, 內外를 構通시키고 있는 經絡은, 藏府를 대신하여 形體를 부릴뿐만 아니라, 형체의 반응을 장부로 전달함으로써 인체가 하나의 生命體로서 整體性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인체의 外面, 즉 外部環境으로부터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은 경락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邪氣와 이 질병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鍼灸의 작용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 『靈樞·經別』과 『素問·五藏生成』에 이르기를, “夫十二經脈者,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 學之所始, 工之所止也.”<sup>33)</sup> “人有大谷十二分, 小谿三百五十四名, 少十二俞, 此皆衛氣之所留止, 邪氣之所客也, 鍼石緣而去之.”<sup>34)</sup>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한이나 복기온병을 일으키는 風寒邪나 신감온병을 일으키는 風溫, 濕邪, 暑邪 등도 이러한 經絡<sup>35)</sup>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변화에 상응하여 살아간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천지 기운의 변화에 따라 人氣의 변화를 맞추어 감으로써 생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春生夏長, 秋收冬藏, 是氣之常也, 人亦應之, 以一日分爲四時, 朝則爲春, 日中爲夏, 日入爲秋, 夜半爲冬.”<sup>36)</sup> 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봄과 여름에는 天地의 기운이 發散함에 따라 사람도 자기의 기운을 열어 天地와 交流함으로써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 자기를 살지우고, 가을과 겨울에는 천지와의 교류를 끊고 받아들인 기운을 깊이 潛藏함으로써 삶을 견고하게 한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도 이러한 천지의 기운과 人氣의 相應과 交流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특히 교류가 활발한 여름에는 “天地氣交”라고 말함으로써 天人의 相應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기운의 변화를 자연의 기후 변화에 맞춰 다시 배치시킨다면, 春分에서 秋分까지는 氣의 交流가 활발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秋分에서 春分까지는 교류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춘분에서 추분의 시기는 외부의 氣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사람도 자기를 열어 놓는 때이며, 추분에서 춘분에 이르는 시기는 외부의 氣가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작용이 성해지는 때이다.

經絡은 이렇게 시기에 따라 외부환경과 반응을 달리하는 생명체의 生理作用을 이행하는 담당자이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經絡을 그 작용에 따라 크게 開闔樞로 나누고 있다.<sup>38)</sup> 즉, 開作用을 하는 太陽經은 內在한 자기의 氣를 分出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氣를 밀치며, 太陽經의 이러한 작용은 그의 裏經이 되는 少陰經이 도운다. 陽明經은 외부로부터 氣를 섭취하는 經으로서, 이러한 작용은 그의 裏經이 되는 太陰經이 도운다. 즉, 기후가 싸늘한 시기에는 太陽經과 少陰經이 주체가 되어 자기를 방어하고, 기후가 따뜻한 시기에는 陽明經과 太陰經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氣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싸늘할 때에는 太陽經과 少陰經의 활동이 활발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陽明經과 太陰經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邪氣가 인체에 침범해 질병을 일으킬 때도 날씨가 추울 때는 太陽經과 少陰經을 통해서, 날씨가 추울 때는 陽明經과 太陰經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朴贊國은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上』에서 논하기를,

“...그러므로 太陽이 가장 밖에 위치하고 陽明은 그 안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氣를 벌어들여야 하는 여름에는 陽明이 자기를 한껏 펼쳐서 외부와 접촉할 부위를 넓히기 때문에, 太陽이 陽明에 밀리어 뒤로 숨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즉, 陽明이 도리어 太陽을 제치고 外氣와 기를 교류하는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에는 邪氣의 침범이 주로 陽明을 거쳐 太陽이나 少陽 등으로 傳變해간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고 하고 있다. 이는 계절에 따라 用事를 주도하는 經絡이 변하고, 이에 따라 질병의 발병경로도 달라짐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절이나 邪氣의 陰陽屬性은 질병의 發病經路를 결

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발병시나,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의 陰陽屬性이 틀린 상한이나 복기온병, 신감온병의 발병경로에 대하여 알아보자.

① 傷寒의 發病經路

仲景의 『傷寒論』은 그 編制를 살펴보면, 辨太陽病脈證並治, 辨陽明病脈證並治, 辨少陽病脈證並治, 辨太陰病脈證並治, 辨少陰病脈證並治, 辨厥陰病脈證並治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가 상한의 전변규율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한이 대체로 太陽經 즉 太陽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순서를 거쳐 발전해 감을 짐작할 수 있다.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上」에서는, 「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 爲不傳, 頗欲吐, 若燥煩, 脈數急者, 爲傳也. 傷寒二三日, 陽明少陽證不見者, 爲不傳也」<sup>40)</sup> 라고 하여, 상한은 太陽經에서 시작하여, 陽明經이나 少陽經을 거쳐 안으로 전변해 들어감을 말하고 있다. 柯琴은 「傷寒論翼」에서 太陽經과 少陰經의 관계에 대하여, 「太陽之根, 卽是少陰, 緊則爲寒, 本少陰脈, 太陽病而脈緊者, 必无汗. 此雖太陽能衛外而爲固, 令汗不出, 亦賴少陰能藏精而爲守, 故不得有汗也. …太陽陽虛, 不能主外, 內傷眞陰之氣, 便露少陰底板. …此表裏雌雄相應之機也」<sup>41)</sup> 라고 하여, 太陽經과 少陰經은 서로 表裏가 되고 太陽經은 인체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데, 陽氣가 허해 太陽經이 邪氣를 감당하지 못하면, 邪氣는 안으로 少陰經에 곧바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즉 太陽病에서 陽明病이나 少陽病으로 전변해 들어가는 것이 誤治<sup>42)</sup>나 時日의 경과에 따라 변천하여 생긴 이차적인 질병이라면, 太陽經과 少陰經은 서로 表裏가 되고 太陽經은 陽氣를 써서 인체를 외부의 邪氣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太陽病이나 少陰病은 陽氣의 虛實에 따라 寒邪에 반응하여 직접적으로 발생

하는 本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한의 發病經路에 대하여 장허곡은, 「蓋冬爲太陽寒水司令, 故傷風寒者, 多從太陽經始, 太陽主一身之表, 與肺同爲皮毛之合, 邪由皮毛而入, 故身熱頭痛者, 太陽經證也. 鼻鳴乾嘔, 或喘者, 肺氣被遏也. 但人體質有強弱, 受邪有輕重, 凡邪中而體強者, 則傷太陽經, 爲麻黃桂枝湯證, 體弱者, 邪從太陽直入少陰, 爲四逆白通湯證, 以二經爲表裏, 經脈連接故也. 如體弱而邪輕者, 以外衛不固, 邪亦入陰, …」<sup>43)</sup> 이라고 하고 있다.

② 伏氣溫病的 發病經路

복기온병은 겨울에 精을 잠잠하지 못하고 寒邪에 상하였는데, 곧바로 병이 발생하지 못하고, 陽氣가 본격적으로 발현하기 시작한 봄에 비로소 생기는 질병이다. 왕맹영은 『傷寒論』 중의 甘草湯, 桔梗湯, 豬膚湯, 黃連阿膠湯 등과 少陰病의 大承氣湯證 등이 목적하는 病證을 복기온병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44)</sup>

장허곡은 이러한 복기온병의 發病經路에 대하여, 「春溫者, 寒邪久伏化熱, 熱由內發, 故初病發熱而渴, 並非外感, 故不惡寒, …蓋邪伏少陰, 乘少陽上升之氣而發, 鬱勃既久, 驟難宣達, 其火內潰, 或作暴瀉, 外灼則肢體痠疼, 上炎則頭痛喉痛, 故加柴胡達少陽之氣, 因勢導之出外, 以少陽爲表裏之機樞, 則內邪得以外出, 經所謂火鬱則發之, 木鬱則達之, …」<sup>45)</sup>, 「冬傷寒邪, 伏於少陰, 化熱, 至春發出於太陽而爲溫病, 卽仲景所論者也. 若葉氏所論之外感溫病, 則又不同者也」<sup>46)</sup> 라고 하여, 복기온병은 상한과 마찬가지로 寒邪가 太陽經을 통해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지만, 곧바로 발작하지 않고 섭생의 잘못 등으로 精을 제대로 잠잠하지 못한 틈을 타서 少陰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날씨가 온난해진 때에 天氣의 변화를 타고 다시 太陽經으로 솟구쳐 나와 발병한다고 하였다. 즉, 복기온병은

비록 날씨가 따뜻할 때 발병하지만, 그 邪氣의 침입경로가 太陽經이기 때문에 질병이 발작할 때도 또한 太陽經이나 그의 裏經인 少陰經을 거쳐 일어난다.

### ③ 新感溫病의 發病經路

십천사는 『外感溫熱論』의 첫머리에서 온병의 발병경로에 대하여, “溫邪上受<sup>47)</sup>, 首先犯肺, 逆傳心包, 肺主氣屬衛, 心主血屬營, 辨衛氣營血, …”<sup>48)</sup> 라고 하여, 溫邪가 온병을 일으킬 때는 肺로부터 시작하여 衛, 氣, 營, 血의 순서로 전변해 들어가고, 逆傳하면 心包로 전변한다고 하였다. 오국통은 『溫病條辨』 「上焦篇」에서, “凡病溫者, 始於上焦, 在手太陰, 傷寒由皮毛竅而入, 自下而上, 始足太陽, …治法必以六經次傳爲祖法, 溫病由口鼻而入, 自上而下, 鼻通於肺, 始手太陰, …”<sup>49)</sup> 라고 하여, 온병의 始發部位를 經絡으로 논하자면, 手太陰經이라고 하였다. 장허곡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온병(즉 풍온)이 肺로부터 시작한 이유에 대하여, “蓋風溫爲輕清之邪, 從皮毛口鼻而入, 鼻爲肺竅, 皮毛肺之合也, 故肺先受傷, 人感虛風賊邪而當溫暖之候, 卽成風溫之病, 四時皆有溫中卽熱病也.”<sup>50)</sup> 라고 溫邪가 경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온병 중에 온역과 습온, 서온 등에 대해서는, “若感濁邪, 如瘟疫及濕溫之重者, 則必脘痞惡食, 舌苔厚膩, 以其近於胃口, 故昔人胃邪膜原也.”<sup>51)</sup>, “蓋風溫溫熱之邪, 其氣清而受於經絡, 暑因濕火鬱蒸而氣濁, 由口鼻吸受, 蓄於膜原, 流傳三焦, 必歸脾胃, 以脾胃爲濕土, …”<sup>52)</sup> 라고 하여, 濕邪나 穢濁之氣와 같은 濁邪가 침범하여 일으키는 습온이나 온역, 서온 등은 膜原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 胃로부터 병이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濕熱病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논한 설생백이 “濕熱乃陽明太陰同病也”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신감은병이 陽明經이나 太陰經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은 날씨가 따뜻하여 양명경과 태음경이 용사를 주도할 때, 사기가 침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상한은 寒邪가 太陽經과 少陰經을 침범, 발병경로로 하는 질병이며, 伏氣溫病 또한 少陰經과 太陽經이 중심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이 두 병은 六經辨證體系에서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신감은병은 풍온은 手太陰經, 습온, 서온, 온역 등은 足陽明經을 통하여 사기가 침범해 들어가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태양경과 소음경을 축으로 하는 육경체계에서 그 병리기전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衛氣營血辨證이나 三焦辨證 등 다른 변증체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 III. 結論

지금까지, 溫病이 傷寒과 다른 辨證體系, 즉 청대 溫病學을 정립한 醫家들이 衛氣營血辨證이나 三焦辨證을 개발하여, 外感病 치료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장허곡의 議論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傷寒과 伏氣溫病은 寒邪가 病因이고 新感溫病은 溫熱邪가 병인이다.
2. 傷寒과 伏氣溫病은 모두 寒邪에 감촉되어 發病하지만, 伏氣溫病은 邪氣가 안에 잠복해 있다가 기후가 따뜻할 때 발작한다. 따라서 傷寒은 보통 太陽經에서 陽氣가 鬱滯되어 발병하지만, 伏氣溫病은 少陰經에서 陰血이 깨져 발병하므로, 傷寒은 太陽經에서 少陰經으로 伏氣溫病은 少陰經에서 太陽經으로 향하는 發病經路를 가진다. 그러므로 六經辨證體系내에서 疾病의 機轉을 논할 수 있다.
3. 新感溫病은 기후가 따뜻한 陽明經과 太陰經이 用事할 때 발병하므로, 傷寒이나 伏氣溫病과 달리 陽明經과 太陰經이 발병의 주요한 經路이다. 그러므로 太陽經과 少陰經을 축으로 성립한 六經辨證體系로 논할 수 없고, 淺部에서 深部 또는 上部에서 下部로 전변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는 衛氣營血辨證이나 三焦辨證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 Ⅳ. 注 및 參考文獻

- 1)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 서울, p. 300.
-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p. 116.
- 3) 洪元植, 上揭書, p. 117.
- 4) 凌繼星, 難經校注, 一中社 影印, 1994, p. 103.
- 5) 張機, 仲景全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서울, p. 119.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多眠睡, …”
- 6) 成無己가 注를 趙開美가 校正한 『集註傷寒論』 즉, 현 大星文化社 影印本 『仲景全書』에 나오는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등은 張機가 직접 기술한 것이 아니고 後人이 補入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 7) 張機, 上揭書, pp. 87-110.
- 8) 洪元植, 上揭書, p. 300.
- 9) 劉守眞, 劉河間三六書, 成輔社, 1976, p. 20. “故仲景曰, 太陽病, 脈浮緊無汗, 身疼痛八九日不解, 表證仍在, 當發其汗, 宜麻黃湯主之, 少陰病得三二日, 口燥咽乾者, 急宜承氣湯下之, 孰敢於三四日汗泄之定法也. …經所謂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 余自製解通聖辛涼之劑, 不違仲景法桂枝麻黃發表之藥, 非余自術理在其中矣, 故此一時, 彼一時, 奈五運六氣所更世態居民有所變, 天以常火, 人以常動, 動則屬陽, 靜則屬陰, 內外皆擾, 故不可峻用辛溫大熱之劑, …豈曉辛涼之劑, 以葱白白蘆朮, 大能開發鬱結, 不惟中病, 令汗而愈, 免致辛熱之藥攻表不中其病, 轉甚發驚狂衄血斑出, …”
- 10) 劉守眞, 上揭書, p. 305.
- 11) 王履, 醫經朔匯集·中國醫學大系14, 商務印書館 영인, p. 952.
- 12) 朴贊國, 溫病學 發達에 관한 文獻의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서울, p. 11.
- 13) 崔三燮·朴贊國, 溫病學, 成輔社, 1989, 서울, p. 51.
- 14) 章虛谷은 그의 저서 『醫門棒喝·上』 p. 122에서 옛날에는 '瘟'字가 없었으며, '瘟'字와 '溫'字는 같다고 하였다.
- 15) 吳又可, 溫疫論·溫病八大名著,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북경, p. 7.
- 16) 吳又可, 上揭書, pp. 9-10.
- 17) 崔三燮·朴贊國, 上揭書, p. 208에서 재인용.
- 18) 趙立勳 編著, 校正濕熱條辨類解, 醫聖堂 影印, p. 11.
- 19) 中國 清代 吳鞠通이 지은 책으로, 目次가 序, 凡例, 原病篇, 上焦篇, 中焦篇, 下焦篇, 雜說 등으로 되어 되어 上, 中, 下焦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 20) 崔三燮·朴贊國, 上揭書, pp. 60-61.
- 21) 王孟英, 溫熱經緯, 旋風出版社印行, 臺北, pp. 1-2.
- 22) 章楠, 醫門棒喝·下, 大成文化社 影印, 1989, 서울, p. 324.
- 23) 장허곡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다. 장허곡 이외에도 많은 醫家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장허곡은 그의 저서 『醫門棒喝』 上下와 『醫門棒喝』 삼집에서 『黃帝內經』부터 『傷寒論』, 청대 제 의가의 온병 저서에 대하여 주석을 달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서로 단절되기 쉬운 각 가의 의론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 24) 金圭烈은 그의 박사학위논문 『章楠의 醫易思想에 관한 研究』의 序文에서 虛谷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清代의 저명한 溫病學家이며, 『內經』, 『傷寒論』과 『周易』의 이치를 融會하여 一以貫之하고, 역대 諸家들의 그릇된 점을 駁正하여 의미를 천명했다 …”고 말하고 있다. 金圭烈, 章楠의 醫易思想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서울, p. 5.
- 25) 章楠, 上揭書, p. 117. “茲細詳溫病源流, 當辨別而分治者, 有五, 一曰春溫, 二曰風溫, 三曰暑溫, 四曰濕溫, 五曰瘟疫”
- 26) 章楠, 上揭書, p. 117.

- 27) 王孟英은 그의 저서 『溫熱經緯』에서 伏氣溫病에 대하여 이르기를, “仲景伏氣溫病篇-傷寒論師曰, 伏氣之病, 以意候之, 今月之內, 欲有伏氣, 假令舊有伏氣, 當須脈之, 若脈微弱者, 當喉中痛似傷, 非喉痺也. 病人云實咽中痛, 雖爾, 今復欲下利.”라 하고, 張澐玉의 주석을 인용하여, “張澐玉曰, 冬月感寒, 伏藏於經, 至春當發, 故曰以意候之, 今月之內, 言春分候也. 若脈微弱者, 其人眞元素虧, 必不發於陽而發於陰, 以少陰之脈循喉嚨, 伏邪始發, 熱必上升, 故必喉中痛似傷, 腎司開關, 經之熱邪不能外發, 勢必內攻, 其後下利也.”라고 하고 있다. 王孟英, 上揭書, pp. 21-22.
- 28) 章楠, 上揭書, pp. 120-121.
- 29) 章楠, 上揭書, p. 121.
- 30) 章楠, 上揭書, p. 121.
- 31) 章楠, 上揭書, p. 122.
- 32) 章楠, 上揭書, p. 117.
-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p. 97.
-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p. 39.
- 35) 『傷寒論』의 ‘六經’에 대해서는 역대 의가들에 따라 견해가 약간씩 틀리다. 丁彰炫은 그의 碩士學位論文인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에서, 이를 크게 ‘經絡說’, ‘臟腑說’, ‘六氣標本中氣氣化說’, ‘部位說’, ‘六經地面說’, ‘疾病類型說’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太陽經, 陽明經, 少陽經, 太陰經, 少陰經, 厥陰經의 여섯 경락의 機能과 範疇設定에 대하여 차이를 두었을 뿐이지, 그 뼈대가 經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206.
-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14. “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夜臥早起, 廣步於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罰, 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 …夏三月, 此爲蕃秀, 天地氣交, 萬物華實, 夜臥早起, 無厭於日, 使志無怒, 使華英成秀, 使氣得泄, 若所愛在外, 此夏氣之應養長之道也. …秋三月, 此謂容平, 天氣以急, 地氣以明, 早臥早起, 與鷄俱興, 使志安寧, 以緩秋刑, 收斂神氣, 使秋氣平, 無外其志, 使肺氣清, 此秋氣之應養收之道也. …冬三月, 此謂閉藏, 水冰地坼, 無擾乎陽, 早臥晚起, 必待日光, 使志若伏若匿, 若有私意, 若已有得, 去寒就溫, 無使皮膚使氣亟奪, 此冬氣之應養藏之道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故與萬物, 浮沈於生長之門, 逆其根, 則伐其本, 壞其眞矣. …”
- 38) 洪元植, 上揭書, p. 29.
- 39)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上,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서울, pp. 522-523.
- 40) 張機, 仲景全書, 大成文化社 影印, 1984, 서울, p. 121.
- 4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上海, p. 181.
- 42) 誤治에 대하여 『傷寒論』에서는 병이 表 즉 太陽經에 있을 때는, 下法이나 吐法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 43) 章楠, 上揭書, p. 119.
- 44) 王孟英, 溫熱經緯, pp. 21-34.
- 45) 章楠, 上揭書, p. 123.
- 46) 章楠, 醫門棒喝·下, 大成文化社 影印, 1989, 서울, p. 324.
- 47) 上受에 대하여 華岫雲은 “邪從口鼻而入”으로 注를 달았다. 崔三燮·朴贊國, 上揭書, p. 209에서 再引用.
- 48) 崔三燮·朴贊國, 上揭書, p. 208에서 재인용.
- 49) 吳瑭 著·陸士那 增評, 增評溫病條辨, 中國書店 影印, 1987, 서울, pp. 2-3.
- 50) 章楠, 醫門棒喝·上, p. 137.
- 51) 章楠, 上揭書, pp. 140-141.
- 52) 章楠, 上揭書, p. 303.